

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의 위해성조사(2019.7~2020.5)에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처분하기로 하고 국표원과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.

- 국표원은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(2019.7~2020.5)*에서 『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』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(리콜명령) 처분하고, 후속 이행점검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임.
 - * 환경부,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(2019.7~2020.5)에서 73개 제품에 대해 『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』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
- 금번 국표원에서 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,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며, 주요 부적합 사항은 아래와 같음.
 - **(교구류)** 프탈레이트계 가소제(기준: 총 함량 0.1%) 기준치를 354배 초과한 줄넘기와 128배 초과한 축구공, 납 기준치(300ppm)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 등 17개 제품이 적발되었음.
 - **(교육용 완구)**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(스티커), 걸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, 구성품(카드)이 카드뮴 기준치(75ppm)를 8배 초과한 카드·통장놀이 세트 등 9개 제품이 적발되었음.
-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(www.safetykorea.kr)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(www.consumer.go.kr)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,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함.

- 이와 함께 소비자·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할 예정임.
- 더불어,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 리콜 포털(globalrecalls.oecd.org) 등록 예정임.
- 국표원은 지난 7월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여름용품(구명조끼류)을 안전성 조사하고 행정처분한데 이어, 환경부가 실시한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표원이 리콜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제품 시장퇴출을 위해 부처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.
-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“국표원은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하여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,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”이라 지적함.
- 특히, 어린이,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“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,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”고 밝힘.